

민주 '鄭 조준'... 총리 청문회 버른다

(윤찬)

논문 중복 게재·병역면제·위장 전입 쟁점화

강운태 "작년 부동산 임대 수입·인세 누락"

9·3 개각 등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이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기선을 제압할 것으로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로 이어지는 정기국회를 민주당 주도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현 정부가 표방하는 친서민 정책과 중도실용의 허구성을 파헤쳐 정국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날 검증작업에 박차를 가하며 정 총리 후보자에 대해 논문 중복게재, 병역 문제 등에 이어 위장 전입과 세금 탈루 의혹까지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증작업에 박차를 가하며 정 총리 후보자에 대해 논문 중복게재, 병역 문제 등에 이어 위장 전입과 세금 탈루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이날 "한때 전원생활을 할까 해서 주소를 잠깐 옮겼으나 돈도 없고 거기도 멀어 포

기했다"면서 "포천에서 땅을 사거나 집을 산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직을 수행할 만큼 탄탄한 도덕성"이라며 "MB정부" 들어 위장 전입은 고위공직자 모두 의혹받을 만큼 공통 필수과목이 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이명박 정권은 '위장전입 정권'으로 불려야 할 것 같다"고 거듭었다.

또 특위 소속인 강운태 의원은 이날 정 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동산 및 인세, 강연료 수입 등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 임대수입(월세 65만원, 보증금 500만원)과 매년 730만~5천만원이던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등이 포함된 기타수입을 누락했다.

저작권 수입 650만원과 인터넷 도서관매입체인 'YES24'의 고문료도 빼졌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 후보자가 부동산 임대수입 및 인세 수입 등의 신고를 누락, 결과적으로 탈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 특위 소속 의원들은 또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쳐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 요구자료를 신속히 제출토록 총리실을 압박할 계획이다.

총리실이 자료의 제출을 미루면서 병역면제, 교수 재직시 기업체 고문 겸직, 논문 이중게재 등의 의혹을 조

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총리청문 태스크포스(TF)' 2차회의를 열어 의원들간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하고 각종 의혹에 관한 자료분석 및 현장일 증작업을 거쳐 18일 마지막 회의를 통해 인사청문회의 쟁점사항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정 후보자 검증에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을, 양당 간사에 한나라당 권경석, 민주당 백원우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특위는 전체회의에서 21, 22일 양일간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확정하고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특위위원 발언 듣는 인사청문특위장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의화 의원이 민주당 김종률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의화 의원이 민주당 김종률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정몽준 대표 취임 후 한 지지율 2%p 상승"

여연 조사... 37.2% 기록

한나라당 정몽준(MJ) 대표가 당 지지율 상승에 힘입어 광복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진수회 여론조사연구소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1일 전국 1만539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 지지율이 4주 전에 비해 7.2%포인트 올라간 37.2%로 조사됐다고 보고했다.

진 소장은 "이는 그 전 주와 비교할 때 2.0%포인트 상승한 것"이라며 "이는 정 대표 취임 효과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정 대표는 여세를 몰아 금주에도 압축면을 넓혀 갈 계획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를 방문하는 데 이어 오후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을 예방했다.

정 대표는 특히 친서민 행보의 일환으로 오는 17일 광주와 전남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또 당내로 발길을 돌려 당 내의 목소리 듣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오는 18일 낮 한나라당 고문단과 오찬을 함께하며 당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저녁 당 사무처 직원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당내 밀바닥 목소리도 청취한다.

특히 금주 중 당내 소장파 의원들과 만날 계획이다. 4월 재보선 직후 당 쇄신에 목소리를 높여온 당내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 중도우파 성향의 초선의원 모임인 '선진화를 추구하는 초선모임'(선초회) 등이 대화 상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본21'은 정 대표 취임 직후 "내년 1~2월 조기 전당대회 개최와 공천제도 개혁 등 당 쇄신 일정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 대표에게 당 쇄신 필요성을 주입시키는데 주력해 왔다.

정 대표와 시도당 위원장들과의 금주 중 면담도 추진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 공심위, 경남 양산 박희태 확정

강릉 심재엽·권성동 압축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위원장 장광근 사무총장)는 14일 박희태 전 대표를 경남 양산 재선거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광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제4차 공심위 회의를 마치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제2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희태 김양수 예비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었지만 당 공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공심위의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김 후보가 박 전 대표의 대리면접을 비판한 것이 적잖게 감안된 것으로 알려져 김 후보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심위 관계자는 "김 후보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과문인지 뭔지 모를 페이퍼 1장을 보내왔다"면서 "공심위원 모두 김 후보의 태도에 모욕감을 느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김 후보는 공천 확정 소식에

"뭐 그렇게 빨리 결정하느냐"면서 공심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한나라당 탈당 뒤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심위는 또 강원 강릉 재선거의 경우 심재엽·권성동 예비후보 2명으로 압축했으며, 이들을 상대로 최종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장 총장은 "두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경선은 당 부설 여론조사기관과 이미 참여한 여론조사기관 2곳을 뺀 8곳 중에서 두 후보자가 직접 추첨을 통해 선정키로 했다"며 "단 0.1%라도 앞선 후보자를 공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기 안산 상록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1, 2위간 격차가 매우 높게 나왔다"며 "하지만 야당이 수도권 공천에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어 여론조사 결과를 중시하되 야당의 공천 상황을 보가며 추후 2차에 결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박연차·정대근·최철국 16일 선고

'박게이트' 1심 재판 다음달 마무리

박연차 게이트의 1심 재판이 오는 10월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관계 인사는 모두 23명.

이들 가운데 1심 재판이 마무리된 사람은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송은복 전 김해시장, 이정욱 전 해양수산개발원장, 박관용·김원기 전 국

회의장 등 모두 6명이며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이미 항소심 선고까지 진행했다.

전직 국회의장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은 1심 혹은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의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2억951만9천원을, 김 전 의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2천345만원을 각각 선고됐다.

오는 16일에는 박 전 회장,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민주당 최철국 의원,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등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또, 세종증권 비리에 연루된 세종캐피탈 김형진 회장과 흥기옥 사장,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 오세환 농협 상무 역시 1심 판결이 내려진다.

오는 18일에는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한편, 이번주 이후 1심 선고를 남

겨둔 인사는 이광재, 서갑원 민주당 의원과 박진,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전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 등 5명이 다.

이 의원은 징역 2년, 추징금 2억283만원을 구형받은 상태에서 선고(23일)를 기다리고 있고 벌금 300만원이 구형된 김 의원은 25일이 선고 예정일이다.

박 의원과 서 의원의 경우에는 아직 선고일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다음 기일인 24일과 21일에 각각 결심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0월 중에는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천 회장의 경우에는 재판이 지연돼 현재까지 불과 3차례의 심리가 열린 만큼 앞으로 2개월 이상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주민등록법 위반 사과" 민일영 대법관 후보

민일영 대법관 후보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사원 아파트 매입을 둘러싼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과 관련,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한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이날 위장전입과 관련된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사정(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결혼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지를 다르게 신고한 사실과 사원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도 모두 인정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010년 신바람나는 공무원합격 준비는 지금부터 한빛에서 — www.hanbitgosi.co.kr

7·9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소방지침서 10월 18일, 모집 300명

신상규, 양정일, 오성일, 권영택, 방수영

쪽집게 문제풀이 4주 완성 개강 9월 14일

종합반 하루 9시간 강의

한빛최고의 합격시스템

개강 10월 5일

민법개약성 직장인을 위한

월야간반

첫개강 > 10월 5일

강의시간 19:00 ~ 22:00

기초부터 심화어론

체계적인 학습단계

합격 논스톱강좌

한빛고시학원

한빛소방지침서문해원

한빛고시학원

공주 북구청앞

전화 231-0234